

4~5》길게 읽기-장애학생 학습권

8》과감, 왜입니?

2015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개설 안내



개설과목 확인 : 11월 2일(월)  
수강신청기간 : 12월 14일(월) 10:30~12월 15일(화) 17:00  
등록금 납부기간 : 12월 16일(수)~12월 18일(금) 16:00  
수업기간 : 2015년 12월 16일(수)~2016년 1월 14일(목)

## 교육여건 23위, 주요 대학과 격차 더 커져 강의규모·전임교원 강의비율·세입 중 납입금 비중 40위 밖

## 해설 - 중앙일보 대학평가 결과

김윤철 기자 kycxellos@knu.ac.kr  
고상아 기자 ddang\_ah@knu.ac.kr

‘2015 중앙일보 대학평가’ 결과를 두고 ‘당혹스럽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포스텍과 KAIST(한국과학기술원)가 계열별 평가로 제외됐음에도 종합순위가 두 계단 떨어진 것은 물론 서울시립대와 ‘분교’로 인식되는 한양대 애리카 캠퍼스, 그리고 그간 분리평가를 받았던 중앙대학교 서울과 안성캠퍼스를 통합해 평가를 받았음에도 이를 대학에 밀리는 성적표를 받아들었기에 ‘당혹감’은 이유 있는 반응이다.

대학은 대책 마련에 부산한 모습이다. 대학평가 결과가 발표된 직후 긴급 교무위원회가 열리는가 하면 지난달 27일 국제캠퍼스에서 열린 교무위원회에서도 평가결과는 회의시간 내내 주된 의제였다는 것이 참석자의 전언이다. 이날 교무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중앙일보 대학평가에 대응하는 방안도 거론된 듯하다. 4개 부문별 지표 점수의 개선을 통해 종합대학 5위권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 대강의 계획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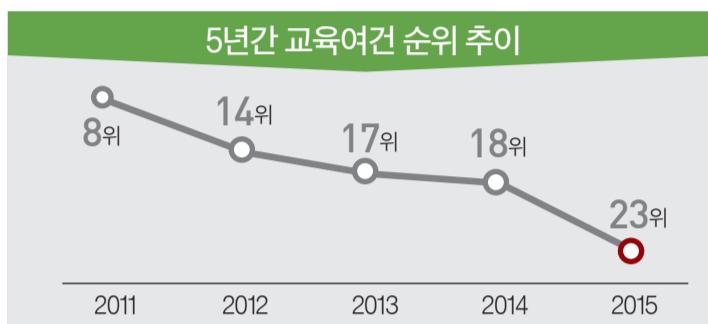
이에 우리신문은 이번 중앙일보 대학평가 결과가 합의하는 것을 살펴본다. 이미 수년 전부터 언론사의 대학평가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대학 평가’ 그 자체가 혼종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사회적 영향도 적지 않기에 결과를 통해 드러난 우리대학의 현실을 살펴보는 것은 그것대로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중앙일보는 이번 대학평가로부터 재원 투자를 통해 지표 점수를 올리기 쉽다고 지적돼온 ‘국제화’ 부문을 축소·폐지하고 ‘학생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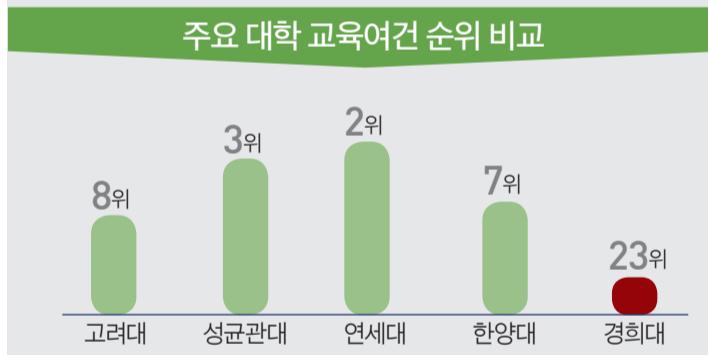
▶6면으로 이어짐

하나의 경희로 가는길② 입학으로 본 경희 - 3면

는 것이 곧 인’이라고 가르쳤다. 또한 불교에는 ‘자신이 상처받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일은 남에게 하지 마라’, 이슬람교에는 ‘자기 자신에



세부지표	점수(배점)	상세지표	순위
교수학보율	15.1(20)	93.07%	11위
기술사 수용률	5.8(10)	19.66%	27위
학생당 도서자료구입비	2.8(5)	13만 9천원	21위
세입 중 납입금 비중	5.3(15)	57.29%	40위 밖
세입 중 기부금	2.7(5)	3.22%	13위
외국인 교수 비율	5.3(10)	10%	32위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	10.8(20)	20.86%	26위
등록금 대비 교육비 지급률	5.5(15)	187.12%	36위
강의규모	0.3(10)	0.29점	40위 밖
전임교원 강의당당비율	0.3(5)	0.49%	40위 밖
외부 경력 교원 비율	0.6(5)	25.55점	40위 밖
학위과정 등록 외국인 학생 비율	6.5(8)	8.37%	5위
외국인 학생의 다양성	3.7(7)	1.598점	34위
교환 학생 비율	9.2(15)	7.11%	13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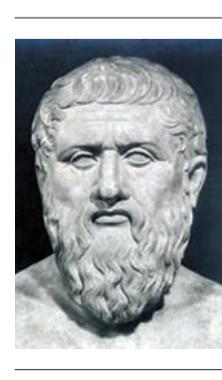
주요 대학 전임교원 연간 책임시수 비교	
경희대 12시간	성균관대 - 15시간 학부 9시간 의무강의, 학기 3시간 의무강의
고려대 12시간	한양대 - 15시간 학부 1강차 의무강의, 주당 6시간 의무강의
서울대 18시간	연세대 12시간
	중앙대 12~15시간

## 황금률: 정의와 사랑의 원리

### 후마 - 대학주보 공동기획 인류문명을 만든 핵심개념 ⑤

최인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황금률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성경 말씀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매우 오래 전부터 수많은 종교 및 문화에서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어 왔다. 일찍이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는 ‘남들이 해서 네가 비난할 행동은 너도 하지 마라’고 말했으며, 공자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

 플라톤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는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 언제나 좋은 것이 있기를 바란다. 따라서 황금률에 의하면, 우리는 남들에게 언제나 좋은 것만 해줘야 한다. 그것이 바로 나 자신에게 바라는 바이기 때문이다. 나에 대한 소망이 곧 타인에 대한 의무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런 터무니없는 비약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체 어떤 힘이, 어떤 원리가 나와 타인 사이를 훌쩍 뛰어넘게 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남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가?

▶7면으로 이어짐

### 알림

####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f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o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khunews/>

p 페터스트 <https://www.pinterest.com/daehakjubo/>

u 유튜브 ‘대학주보’ [https://www.youtube.com/channel/UC8t9\\_LCfmJ7dxw4THjUR0YQ](https://www.youtube.com/channel/UC8t9_LCfmJ7dxw4THjUR0YQ)

g 구글플러스 ‘경희대 대학주보’ <https://plus.google.com/u/0/108802383036836051070/posts>

### 특별기고

역사, 살아 숨 쉬는 생생한 현재 진행형 학문  
서상훈 (문화평론가) ▶7면

